

2012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고전문학반

1. 답사 개요

(1) 기간

2012년 4월 25일(수) ~ 2012년 4월 27일(금)

(2) 지역

남원, 지리산 일대

(3) 참가 인원

지도교수: 권두환, 김명호, 박희병, 이종묵, 조현설, 정병설

조교: 김동욱

대학원생: 이준영, 고은임, 유정열, 채윤미, 박영민, 카이미, 유인선, 왕결청, 윤준섭, 정의석, 정문채, 최어진, 풍자, 유수연, 김규래, 조혜진, 윤병용, 정해나(18명)

학부생: 전기화, 김윤주, 김재송(3명)

2. 답사 일정

고전문학반은 4월 25일 오전 8시 서울대 운동장에서 집결하여 남원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우선 전주에 도착하여 돌솥밥으로 식사를 한 뒤, 남원에 도착하여 광한루원과 만복사지, 실상사를 차례로 답사하였다. 가늘게 비가 내렸으나 오히려 풍경이 고즈넉하고 날이 선선하여 함께 걷기에 좋았다. 숙소는 지리산 자연휴양림이었다.

둘째 날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일정을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화엄사에 도착하여 연곡사로 향하는 구간, 오후에는 송홍록 생가로 오는 구간이었다. 화엄사에서는 국보급의 여러 건축물과 석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8명창 가운데 한 사람인 송홍록 생가에서는 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장님의 해설과 함께 명창의 생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둘레길을 걷는 동안에는 쾌청한 날씨 아래 중간중간 개울물에서 쉬기도 하고 그늘에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 등,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들을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천은사에 들른 뒤 지리산 노고단을 등정했다. 전날보다 날이 선선하여 산에 오르기 좋았다. 일정을 마친 후에는 전주로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계획되었던 답사 일정 외에 기억할만한 것은 첫째 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답사 인원들을 4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음식재료들을 준비하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여 저녁 식사 시간에 요리 경연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몰랐던 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식사자리에서는 다채로운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 답사는 퇴임을 앞두신 권두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답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데 모인 시간에 대학원생들이 권두환 선생님을 위한 노래를 준비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소중한 자리였던 만큼, 선생님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술자리 가운데 오래도록 추억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현대문학반

1. 답사 개요

(1) 기간: 2012년 4월 25일(수)~27일(금)

(2) 장소: 경상북도 일대(영양, 안동)

(3) 대상작가: 조지훈, 이문열, 이육사

(4) 참가인원

지도교수(4명): 양승국, 박성창, 방민호, 김유중

인솔조교(1명): 김영미

박사과정(12명): 김정현, 나카지마 켄지, 노태훈, 박상은, 백두산,
사티안슈, 서여진, 이광육, 이행미, 임혁, 조서연,
최호영

석사과정(14명): 김건형, 김민조, 김정은, 노민혜, 박태건, 안리경,
유연주, 윤지은, 이미영, 이준희, 이지현, 정새벽,
한경희, 하재희

학부생(3명): 김지우, 이창건, 박성연

2. 답사 일정

현대문학반은 오전 8시 반 학교에서 출발하여 경북 영양으로 향했다.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꽤 먼 길이라 피곤할 법도 했지만 서로 담소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를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했다. 도착해서 맞이한 점심식사는 산채비빔밥이었다. 정갈한 음식과 골짜기의 정취가 더해져 도심의 때를 한껏 지워내는 느낌이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시인 조지훈의 고향 영양 주실마을이었다. 주실마을은 한양 조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주실이란 이름은 마을의

모습이 배의 모습을 닮아 그리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조지훈의 생가인 호은종택은 이 마을 입구 주실교 건너편 우측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풍광이 범상치 않은 곳이었다. 산세나 물길이 이 곳이 얼마나 명당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조지훈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인 조지훈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작품이나 생애만을 정리해놓은 것이 아니라 조지훈의 갖가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실제 조지훈의 생애에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지훈 시 공원에 있는 동상과 시비도 인상적이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인근의 “두들마을”이었다. 30여 채의 전통가옥이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는 고즈넉한 곳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 이문열을 만날 수 있었다. 고향인 두들마을에 내려와 있던 선생은 호탕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학생들도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해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는 안동으로 이동해 그 유명한 안동찜닭을 먹었다. 안동에서 직접 찜닭을 먹어보는 경험은 대부분이 처음이었는데, 그 맛이 과연 원조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짐한 양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그릇의 밥을 뚝딱 비우게 만드는 맛은 일품이었다. 식사 후에는 숙소로 이동해 학술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시인 조지훈에 대해 학부생 김지우, 석사생 윤지은이 발표를 맡았고, 이육사에 관해 학부생 박성연, 석사생 노민혜가 발표를 했다. 시인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틀째 아침은 역시 안동의 명물인 간고등어 정식으로 깔끔하게 시작되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이육사문학관이었다. 2004년 7월 육사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한 이육사문학관은 육사선생의 고향인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문학관 내부에는 육사선생의 친필 원고를 비롯하여 선생의 시집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문학관 주위에는 청포도 샘과 선생의 생가를 복원해 놓아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는 이육사 선생

의 파님이신 이옥비 여사를 만나 뵙고 시인에 관해 귀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점심으로 안동국수를 먹고 도착한 곳은 병산서원이었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서, 류성룡(柳成龍)과 그의 셋째아들 류진(柳珍)을 배향한 서원이다. 류성룡(柳成龍) 선생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 류성룡 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각종 문현 1,000여 종 3,000여 책이 소장 되어 있다. 병산서원의 경치에 관해서는 도저히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그 앞을 흐르는 드넓은 강, 그리고 부드러운 모래 등을 서원에 앉아 볼 수 있다는 사실만 기록해둔다. 이후 방문한 곳은 하회마을이었다. 이곳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지만 실제로 구석구석을 둘러보니 한국적 삶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던 그곳에서 우리는 조별로 미션을 수행했는데 각각의 조가 친목도 다지면서 흥미롭게 마을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저녁으로는 안동의 한우불고기를 넉넉하게 먹고 월영교의 야경을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에서는 이제 현대문학 답사의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조별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세 개의 조가 준비한 '답사곡'은 답사를 떠나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꾸며졌는데, 학생들의 끼와 재능에 서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술자리는 이를 간 쌓인 정을 함께 나누면서 어느덧 답사의 마지막 밤이라는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였다.

마지막 날 아침은 얼큰한 육개장으로 속을 달래며 출발했다. 처음 이자 답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착한 곳은 천등산에 위치하고 있는 봉정사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지만 사찰다운 한적함을 간직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경북 영양, 안동까지는 서울에서 4시간여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었다. 그런 만큼 평소에 우리가 가보기는 어려운 곳들이 많았다. 이 일대의 곳곳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조지훈이나 이육사가 지닌 어떤 '기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고즈넉한 풍광과 그 속에서 가문의 품위를 유지하는 선비의 기질 말이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

심을 떠나 야외에서 마주한 선생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료들은 모두가 이런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듯했다. 맛있는 음식과 멋있는 경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답사였다.



비가 내리던 조지훈 생가에서 (2012. 4. 25.)



작가 이문열 선생과의 대화 (2012. 4. 25.)

■ 국어학반

1. 답사 개요

(1) 일시: 2012년 4월 25일(수) ~ 4월 27일(금)

(2) 장소: 전남 담양 및 전북 남원 일대

(3) 주요 활동:

7개 조로 나뉘어 전남 담양 지역의 방언을 조사함.

전남 담양 및 전북 남원의 명승지를 답사함.

(4) 참가 인원:

교수(9명): 송철의, 장소원, 김성규, 전영철, 정승철, 박진호, 황선
엽, 김현, 문숙영

조교(1명): 오규환

대학원생(28명): 신용남, 이상훈, 이현주, 성은실, 김한결, 이경은,
유연, 과베우 키다, 양해승, 김민지, 안영희, 이민,
장고은, 김태우, 이영환, 순효신, 장희건, 김정주,
조근학, 김염, 사라, 사례, 김태인, 최병욱, 김정
아, 최진, 김수영, 하이란

학부생(17명): 최광호, 최준호, 제니, 야나, 위효준, 후이후아, 하청,
고옥양, 이용하, 정승철, 정우현, 춘메이, 박혜민, 김
은실, 정승희, 이재림, 윤예진

2.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1) 4월 25일

- 전남 담양 소재 죽녹원 관광
- 전남 담양 소재 소쇄원 관광
- 전남 담양 소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광

(2) 4월 26일

- 09:30 조사지로 이동, 방언 조사
- 18:30 저녁 식사 및 방언 조사 보고
- 21:00 뒤풀이

(3) 4월 27일

- 전북 남원 소재 광한루 관광
- 전북 남원 소재 사직단 관광 후 학교로 복귀

(4) 방언 조사

- 장소: 신흥마을 · 박곡마을 · 장찬마을 경로당
- 제보자 정보

김점임(75세, 여) 담양군 월산면에서 이주함. 타지 경험 없음.
 조양림(77세, 여) 용면에서 4대째 거주. 타지 경험 없음.
 배인섭(84세, 남) 용면에서 6대째 거주. 타지 경험 없음.
 한석춘(78세, 남) 용면에서 14대째 거주. 타지 경험 없음.
 한석칠(89세, 남) 용면에서 14대째 거주. 타지 경험 없음.
 노동춘(80세, 남) 용면에서 5대째 거주. 타지 경험 없음.
 신현희(86세, 여) 용면에서 4대째 거주. 타지 경험 없음.

- 조별 조사 내용

- 1조: 음운체계 및 어휘(농경, 음식, 가옥) 조사
- 2조: 어휘(음식, 가옥, 민속) 조사
- 3조: 어휘(민속, 인체, 육아) 조사
- 4조: 어휘(친족, 동물, 식물) 조사
- 5조: 어휘(식물, 자연), 종결어미 조사